

---

#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

---

2021. 1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목 차

I. 외화보험 개요 .....	1
[첨부] 외화보험 판매현황 .....	2
II. 외화보험의 특성 .....	3
III. 외화보험의 리스크 요인 .....	4
IV.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 .....	6
1. 판매절차 강화 .....	7
2. 판매책임 제고 .....	9
3. 모집수수료 개선 .....	9
4. 리스크 관리 강화 .....	10
V. 향후 일정 .....	11
[참고]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사례 .....	12

# I. 외화보험 개요

## 1. 상품구조

- **[설 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 하며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설정\*

\*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해약환급금 보장, 모집수수료 지급한도 등 현행 보험업법규상 상품설계 관련 기준을 '외화' 기준으로 충족

- **[판 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어 '외화보유자', '외화수요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원화'로 가입 가능

\* 보험사가 환전특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 환전은 불필요

## 2. 상품유형

- 외화보험은 보장성상품, 저축성상품으로 모두 판매 중

- 만기가 긴\*(30년이상) 종신보험, 질병보험(보장성)과 노후소득보장과 저축목적의 연금보험(저축성)을 주력상품으로 판매

\* '21.9월말까지 신계약건 누적기준 보험기간 30년 이상 장기보험 비중이 92.3%

<보험상품별 판매현황(단위 : 억원)>

구분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보장성보험	245,159	(72.4%)	11,840	(21.3%)
저축성보험	93,677	(27.6%)	43,858	(78.7%)
합계	338,836	(100.0%)	55,698	(100.0%)

※ 판매 개시일부터 '21.9월말까지 누적 기준

- 계약건수는 보장성보험의 비중(72.4%)이 높으나, 수입보험료는 가입금액이 높은 저축성보험의 비중(78.7%)이 높음

## 3. 자산운용

- 보험사는 '외화'로 납입 받은 보험료를 '외화' 표시 장기자산 (예: 해외 장기회사채·국채)으로 운용

- 자산(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책임준비금)가 모두 '외화'이므로 보험사의 '환 위험'은 기본적으로 헷지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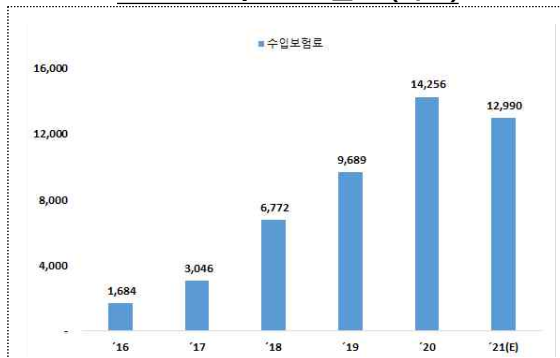
※ 다만, 환전 시차에 의한 환리스크, 외화유동성 문제 발생여지(후술)

□ (판매현황) 외화보험 판매금액은 '17년 이후 증가추세

- 계약건수는 '17년 0.5만건에서 '20년 10.5만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판매금액도 '17년 3,046억에서 '20년 1조 4,256억으로 4배 넘게 상승

\* (신계약건수, 만건) ('17) 0.5 → ('18) 5.5 → ('19) 8.4 → ('20) 10.5 ('21.1~9월) 6.2  
(수입보험료, 억원) ('17) 3,046 → ('18) 6,772 → ('19) 9,689 → ('20) 14,256 → ('21.1~9월) 9,742

연도별 수입보험료(억원)



최근 20년간 환율변동현황(원달러)



\* 그래프상 21년 수치는 21년 1~9월 수치를 단순히 4/3배한 수치임

- '21.9월말 기준, 판매사는 8개사\*, 판매상품도 20개(보장성 8, 저축성 12)

\*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AIA, ABL, DGB, 신한라이프, KB, 삼성

□ (연령별)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누적판매건수 기준으로 9.2% (40대(27.7%) > 30대(21.1%) > 50대(19.8%) 순 )

- 다만, 누적 판매금액 비중은 28.1%로 상당히 높은 수준

\* 고령층이 연금 등 보험료가 비싼 보험에 주로 가입하는데 기인  
(60대 이상 고령층 가입비중 : (저축성) 65.3%, (보장성) 34.7%)

□ (판매채널별) 외화보험은 주로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비중(누적 판매건수)은 설계사(45.4%), 대리점(37.1%), 방카(17.6%) 순

- 종신·변액보험은 각각 설계사(61.5%), 대리점(55.0%)을 통한 판매가 많은 반면, 저축·연금보험은 방카채널(85.7%)에서 대부분 판매

## II. 외화보험의 특성

**외화보험 = 「보험 + 환투자」 → 투자적 성격 내재**

\* 최근 1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280원**(‘20.3.20.), **최저치 1,008원**(‘14.7.7.)  
최근 2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573원**(‘09.3.3.), **최저치 902원**(‘07.11.2.)  
최근 3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962원**(‘97.12.23.), **최저치 725원**(‘91.6.27.)

### 1. 보험 본연의 기능 충족여부

- 보험은 보험료를 기초로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외화보험은 소비자가 환율변동에 전면 노출되어 보험 본연의 기능 상실 가능
- 보험료(원화 기준)가 고유의 위험률에 더하여 환율에 따라 변동하고 보험금(원화 기준)도 위험보장액에 부족할 수 있음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

※ ‘외화’ 실수요(자녀상속, 해외이주, 리스크분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외화’로 보험금을 수취하여 환율변동의 영향이 없음 → 보험의 본질에 부합 측면

### 2. 투자적 성격

-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으로 지급금액(보험료)이 회수금액(보험금)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적 성격’이 내재된 측면
-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보유
- 외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원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보험금 수령시 환차익까지 기대

- ① 일본 금융청은 외화예금에 대해 납입 전과 회수 후에 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환위험이 존재한다**는 의견 표명
- ②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경제활동 및 금전관계가 ‘원화’를 기초로 형성되므로 외화보험의 경우에도 ‘원화’ 관점에서 ‘투자적 성격’ 판단 필요

### III. 외화보험의 리스크 요인

#### 1. 불완전판매 우려

- ☐ 설계사 교육자료, 상품설명서에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 설명이 부실하고 환율방향성 단정 등 소비자 오인유발 내용 포함

##### < 설계사 교육자료(예시) >

[A생명] '지금은 달러 살 타이밍', '달러는 보너스다'

[B생명] 달러가치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중,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

[C생명] 코로나 위기사 달러가치 폭등, 위기前 달러에 투자했다면 주식 대비 48% 초과수익

- 외화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이 지속 증가 ('18년, 0.26% → '20년, 0.38%) 하여 전체 불완전판매건수 중 비중도 급증 ('18년, 0.7% → '20년, 3.2%)

##### <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비율 >

구분	불완전판매 (건, %)					신계약 (만건, %)		
	외화		전체		비중 (A/B)	외화	전체	비중
	건수(A)	비율	건수(B)	비율		건수(C)	건수(D)	(C/D)
2018	142	0.26	20,641	0.26	0.7	5.5	1,403.9	0.4
2019	308	0.37	16,177	0.19	1.9	8.4	1,530.4	0.5
2020	400	0.38	12,659	0.15	3.2	10.5	1,481.4	0.7

-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보험가입을 진행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다수 발생\*(참고)

\* 환차익만 강조하고 종신보험의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 중요내용 미설명

#### 2. 소비자 금전손실

- ☐ [납 입] 보험료 납입기간중 '환율상승'시 보험료 부담 증가\*

\* 정기·장기납 상품(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일시·단기납(연금 등 저축성 보험) 상품에 비해 납입기간이 길어 '환율'에 따른 보험료 변동위험이 높음

- ☐ [해 지] 보험의 특성(장기계약)상 해지수수료가 높고 '환율변동 위험'과 결합되어 중도해지시 막대한 금전손실 발생 가능

※ 외화보험 해지계약 환급률 ('16~'21.3월 계약해지건 기준)

■ (보장성보험) 평균 계약유지기간 1.3년, 소비자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34% 내외

■ (저축성보험) 평균 계약유지기간은 3.7년이고, 환급률 90~107% 수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규제 등으로 평균유지기간, 환급률이 높음

< 외화보험 원화·외화기준 환급률 >

구분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합계
			연금	저축	변액	
외화기준 환급률	34.1%	104.8%	107.0%	98.1%	88.1%	101.4%
원화기준 환급률	34.0%	104.2%	107.5%	97.9%	90.3%	99.4%

○ 환율의 변동성이 심한 경우(예: '08년 금융위기) 해지 급증

< 연도별 외화보험 해지건수 현황 >

연도	A생명	B생명	C생명	합계
2004	5	2	-	7
2005	387	7	20	414
2006	1,573	14	72	1,659
2007	1,415	141	606	2,162
2008	344	299	3,342	3,985
2009	118	54	347	519
2010	0	11	93	104

□ [보험금]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하락'시 보험금 규모 감소\*

\* 종신보험, 건강·간병보험은 보험금 수령시점이 먼 미래(수십년 후)이므로 '환율' 예측이 어려워 환율변동에 따라 기대하는 충분한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

### 3. 건전성 · 유동성위험

□ [건전성] 외화보험 관련 비용(모집수수료, 유지관리비 등)은 원화로 지출되나, 수입(보험료 등)은 장기간 '외화'로 발생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미스매치에 따른 환손실 발생 가능

□ [외화유동성] 해지율 증가, 신규가입 감소시 해지환급금 반환과정에서 장기 외화자산을 매각해야 하므로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

## IV.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

### 〈 기 본 방 향 〉

- ①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외화보험에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 ②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상품설명방식, 판매수수료 등 판매체계 전반 개선
- ③ 외화유동성, 불완전판매 등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방향	추진과제
1. 외화보험 판매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li> <li>② 실수요 확인절차 강화</li> <li>③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 설명의무 확대</li> <li>④ 계약자확인서 징구 등 중요사항 확인 강화</li> <li>⑤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li> </ul>
2. 외화보험 판매책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화보험 판매시 대표이사 책임 강화</li> <li>② 고령자 고객은 지정인에게 중요사항 안내</li> <li>③ 소비자 분쟁 증가 등 문제 발생시 단계적 조치절차 마련</li> </ul>
3. 외화보험 모집수수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시 의무 없이 지출 가능한 외화종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 한도 축소</li> </ul>
4. 외화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화보험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마련</li> <li>② 외화보험 자산 구분계리 의무화</li> </ul>



## 1 판매절차 강화

### ① [판매행위 규제] 외화보험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6大 판매원칙\*을 전면 적용

\* ①설명의무, ②불공정영업 금지, ③부당권유 금지, ④허위·과장광고 금지는 既 적용중

#### ○ 투자적 성격과 보험상품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sup>1)</sup>·적정성<sup>2)</sup>원칙을 추가 적용

\* 1)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2) 적정성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 他 보험상품 및 해외사례

◇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11) 및 적정성 원칙(§12)을 既 적용 중

◇ 일본 금융청은 변액보험, 변액연금, 외화보험 등 투자성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행위규제 적용('07.4월)

### ② [실수요 확인] 대만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적합성 원칙 적용시 실수요여부(보험가입목적, 외화투자경험 등) 확인절차 강화

#### <외화보험 적합성 조사 양식(안)>

목적	질문
보험가입 목적	귀하가 해당 상품을 외화보험으로 가입하는 주된 목적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화투자경험	귀하께서 외화예금, 외화펀드 등 외화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이 있습니까?
보험료 납입능력	퇴직 등 향후 수입원 감소 등을 감안한 귀하의 보험료 납입 가능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험계약 유지능력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①달리는 손실가능성이 없어 안정적이기 때문, ②가끔 해외 여행경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 선택시 부적합으로 판단(5지선다형)

◆ (要 조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22.上)

③ **[설명의무 확대]** 외화보험 가입시 환율변동(±10~50%)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

- 유지기간 중에도 '판매시점의 환율'과 '분기말 환율'을 비교하여 매 분기마다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안내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금 변동 예시

대표계약 기준

[가입기준] 기본형, 남자 40세, 표준체, 가입금액(사망보험금) \$50,000, 10년간 매월 납입

보험료 납입시

	납입 기준 환율	월보험료	
		달러(\$) 기준	원화환산 납입금액
1회차	800원	300\$	240,000원
2회차	1,000원	300\$	300,000원
3회차	1,200원	300\$	360,000원
4회차	1,500원	300\$	450,000원
5회차	1,800원	300\$	540,000원

실제납입금액↑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 기간	지급 기준 환율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달러(\$) 기준	원화환산 금액	달러(\$) 기준	원화환산 금액
10년 납입 완료 시점	800원	\$50,000	4,000만원	\$30,000	2,400만원
	1,000원	\$50,000	5,000만원	\$30,000	3,000만원
	1,200원	\$50,000	6,000만원	\$30,000	3,600만원
	1,500원	\$50,000	7,500만원	\$30,000	4,500만원
	1,800원	\$50,000	9,000만원	\$30,000	5,400만원

사망보험금 \$50,000

해지환급금 \$30,000

매월 납입기준 환율로 계산된 '원화 환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환율 하락시 → 보험료 감소

환율 상승시 → 보험료 증가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달러(\$)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환산금액은 변동됩니다.

환율 하락시 → 지급보험금 감소

환율 상승시 → 지급보험금 증가

[예시]

납입기준 환율 1,500원/\$에서 사망시 지급기준 환율이 800원/\$으로 급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5,400만원, 지급받는 보험금은 4,000만원으로 (← 원화환산 기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要 조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22.上)

④ **[중요사항 확인 강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징구

주요내용 확인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며,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달러로 표시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원화 가치는 환율변동에 따라 계속 변동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의 환율이 높고 보험금을 받을 때의 환율이 낮으면, (원화 기준으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해지시 달러를 기준으로 기납입보험료 100%를 환급하는 시점이 2048년 이후로 예상(이율2.1%가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원화기준의 기납입보험료 이하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보험계약자 \_\_\_\_\_ (서명)

-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진행하여 보험료·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설명여부를 면밀히 재점검

\* 보험계약 체결시 충분한 상품설명이 진행되었는지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 5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

## 2 판매책임 제고

- 1 **[대표이사 책임강화]** 대표이사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가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개발·판매

-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하여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 심의·결정

- 2 **[고령자 고객 지정인 알림]** 고령자가 외화보험 가입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보험금 지급 등 중요사항 안내\*

\* (일본) 고령자가 외화보험의 복잡한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령자 계약시 친족의 동석을 의무화

- 3 **[사후관리 강화]** 불완전판매로 과다한 소비자 분쟁 발생, 외화 유동성비율 하락시 판매축소·중단 등 단계적인 조치절차 마련

◆ (要 조치사항) 「외화보험 판매 모범기준」 제정(22.1분기)

## 3 모집수수료 개선

- “Outbound” 영업유인 축소를 위해 모집수수료 한도 조정

- 외화종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이 표준해약공제액<sup>1)</sup> 대비 100%(현행 140%<sup>2)</sup>) 초과시 계약체결비용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1) 상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약공제액 상한

2) 종신보험은 설계사 소득감소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비용(100%)의 예외 인정

-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하도록 유도

**<제도개선 효과(예시)>**

구분	기존	개선
월보험료	\$100	\$97
모집수수료 총 수취액(해지고려, 10년)	\$830	\$640

\* 40세가입, 10년납, 사망보험금 \$18,000 종신보험 기준

◆ (要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2.上)

## 4 리스크 관리 강화

- ① 외화보험 관련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
  - 외화보험 해지율 증가, 신규판매액 감소 등으로 발생가능한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유도
  - 외화보험 해지율, 신규판매액 변화 등을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 ② 외화보험 자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보험과 유사하게 他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

**<외화보험과 원화보험 자산의 미구분에 따른 리스크>**

- ❶ 전체 운용자산 중 외화보험 자산의 수익률이 원화보험 자산보다 낮을 경우 원화보험 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이 감소하여 불이익 발생 가능
  - ❷ 외화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기투자한 높은 금리의 외화자산 매각이 필요하여 원화보험 계약자에 불이익 발생
  - ❸ 외화자산 투자가 많은 보험사 입장에서 외화부채(외화보험 판매) 증가시 외화자산-부채 차이가 감소하여 소비자에 환헛지비용 전가 가능
-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 귀속을 합리화하고, 거액의 해지나 보험금 발생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 감소

◆ (要 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21.12월)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2.상)

## V. 향후 일정

- 모범규준 제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추진

### < 세부 추진일정 >

추진과제	필요조치(개정)
1. 판매절차 강화	
①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금소법 시행령 개정('22.상)
② 실수요 확인절차 강화	감독규정 개정('22.상)
③ 설명의무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2.상)
④ 중요사항 확인 강화	모범규준 마련('22.1분기)
⑤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	상시
2. 판매책임 제고	
① 대표이사 책임 강화	모범규준 마련('22.1분기)
② 고령자 고객 지정인 등 알림	
③ 소비자 분쟁 등 다수발생시 단계적 조치절차 마련	
3. 모집수수료 개선	
① 외화종신보험 계약체결비용 한도 축소	감독규정 개정('22.상)
4. 리스크 관리 강화	
① 외화보험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시행세칙 개정('21.12월)
② 외화보험 자산 구분계리 의무화	감독규정 개정('22.상)

## 참고

##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사례

- (설계사 교육)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가능성 관련 내용이 없거나, '환율방향성'의 단정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

[판매채널 교육자료] 점검시 회사별 특이사항

1. 질문화법 “달러(\$)는 보너스다”

✓ 월급을 달러(\$)로 지급받는 정책에 찬성하시나요?

✓ 월급은 원화로, '보너스'를 달러(\$)로 지급하는 정책에 찬성하시나요?

우리가 꿈꾸는 유튜브들의 유튜브 광고 수익금은 달러(\$)로 지급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은 달러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달러를 제안하세요!

**달러를 구매하는 적기는?**

경제위기가 있을 때 달러의 가치 UP!  
달러화 약세 추이 → 지금이 달러 사야할 타이밍

### 판매 포인트

1.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로 든든한 자산관리  
달러를 내 자산의 일부로 준비함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
2. 저금리시대 확정금리로 사망+미래자금 마련  
사망보장+안전장치(예정이율 1.9%)까지 달러로 수령 가능
3. 원/달러 환율 하락시 납입 보험료 절감  
\* 환율 상승시 원화 납입 보험료 상승  
달러 가격 하락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
4. 원/달러 환율 상승시 보험금,해지환급금 상승  
\* 환율 하락시 보험금, 해지환급금 하락(원화 수령시)  
경제 위기 발생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상승

이번 '20년 코로나 위기시에도 달러 가치는 폭등 \$\$\$

● 위기前 달러에 투자했다면, 주식대비 무려48%의 초과수익  
-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달러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

- (불완전 판매) 외화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불완전판매건수 중 비중도 증가\*\*

\* ('18) 0.26% → ('19) 0.37% → ('20) 0.38%    \*\* ('18) 0.7% → ('19) 1.9% → ('20) 3.2%

- 금융꿀팁('19.7월), 소비자 경보('20.10월) 등으로 소비자 안내자료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확인

\*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 설명문구가 지나치게 작게 표기된 경우 등

-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보험가입을 진행하여 민원제기 사례도 다수 발생

### 환차익 강조 민원사례

- A씨는 외화보험상품은 달러환차익이 목적이고 환율이 높을 때 해지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미달함을 확인하고 민원제기
- B씨는 보험설계사가 외화종신보험에 대해 달러 환차익 가능성에 대하여만 강조하고 종신보험의 사업비 수준 및 보장내용(사망)을 안내하지 않아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하여 가입
- C씨는 외화보험이 적금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투자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투자상품이라고 오해하여 가입하였으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임을 알고 보험료 반환 요청